

트럼프 시대, 와인의 운명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트럼프 와인러리 블랑 드 블랑, 트럼프 와인러리 샤르도네, 트럼프 와인러리 메리티지, 트럼프 와인러리 카베르네 소비뇽 /금양인터내셔널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하나뿐인 딸 첼시의 결혼식에 트럼프 와인러리에서 만든 와인이 쓰였다. 미국 45대 대통령을 지내고 47대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와인러리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두 가지 의문이 바로 생긴다. 첫째는 클린턴이 소중한 딸 결혼식에 왜 하필 트럼프 와인을 썼을까, 두번째는 술 한 잔 안하는 트럼프가 무슨 와인러리냐.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첫번째 의혹은 풀린다. 첼시 클린턴의 결혼식에는 트럼프가 사들이기 전인 클루기 와인러리의 와인이 쓰였다. 결혼식은 2010년. 트

럼프가 와인러리를 인수한 것은 2011년이니 말이다.

이번엔 두번째 의문을 풀 차례다. 외모나 언행으로는 말술을 마시게 생겼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금주자로 유명하다. 방한 당시 국민 만찬을 가졌을 때도 트럼프의 잔에는 와인이 아닌 플라가 담겨 있었다.

와인러리를 와인보다 부동산의 가치로 인식하면 이해가 빠르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트럼프 와인러리는 원래 클루기 와인러리였다. 사업

을 크게 확장하려던 찰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매년 수십만 달러의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클루기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는 와인러리를 시장가치의 10%만 주고 사들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한다. 사실 진짜 사고 싶었던 물건은 와인러리 내에 있는 앨버말 저택이었기 때문이다. 폐가같은 주변 환경에 매수하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트럼프는 은행에 저당잡혀 있던 저택을 원래 가격의 15분의 1 수준에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저택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호텔로 바꾸고, 클루기 와인러리는 트럼프 와인러리로 재탄생했다. 지금은 '대통령 와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버지니아 최대의 와인러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입 중이다. 금양인터내셔널은 트럼프 와인 가운데 '트럼프 메리티지'와 '트럼프 블랑 드 블랑',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 등을 선보였으며,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다.

트럼프 와인은 품질 사태를 빚고 있지만 사실 오는 20일(현지 시각)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와인업계 표정은 어둡다.

먼저 관세 이슈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고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걸었다. 전 임기에도 관세로 무역 갈등을 부추겼던 트럼프다. 2020년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으면서 프랑스 와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입 와인이 비싸지면 미국

와인러리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리건주 한 와인러리 관계자는 "당시에도 무리한 관세 부과에 따른 와인러리들의 이익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와인업계의 수출을 사실상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유리병과 오크통 등 수입된 물품에 의존하는 미국 와인 산업의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관세를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와인병은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수밖에 없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도 우려되는 부문 중 하나다.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이민자다. 와인러리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수확도 지연될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공부, 지식 넘어 인격과 영혼 정화”

‘공부하는 삶’은 ‘배움’이라는 행위를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긴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가 평생 배우고 익히면서 얻은 공부에 필요한 정신, 조건, 방법 등을 살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신토마스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여서 그런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자못 경건하다. 책의 첫머리에서 세르티양주는 공부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신의 부름에 유순하게 복종하는 삶, 즉 공부라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전제한다.

그는 “공부하는 삶은 금욕과 의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려면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 진리는 자신의 총박만을 섬긴다”고 말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공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와 인풋, 아웃풋.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고 읽으면 그게 공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에게 공부는 신성하고 경건한 행위이기, 제례 의식이 필요하다. 인격 수양이 바로 그것.

세르티양주는 “인격적 자질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 지적 능력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지적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본질이 결정된다”면서 소명에 따라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책에는 “인격이 난파된다면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에 참된 것을 먹으면 양심이 밝아지고, 선한 것을 보살피면 앎을 얻는다”, “사유가 순수하려면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 등 바람직한 선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한다.

마음 정화 후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 세르티양주는 천재 저자들을 가까이하라고



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지음/이재만 옮김/유유

조언한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셰익스피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등 정신의 귀족들이 남긴 기록을 빨아들이라는 것.

세르티양주는 “성인들의 성찬식은 영성적 삶을 뒷받침한다”며 “사람들의 열렬한 숭배를 받아 영원히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연회는 우리의 지적인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천재들의 생각을 흡수하되, 그들의 사유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남이 한 말을 맹무새처럼 반복하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무용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세르티양주는 “우리의 의무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며 “천재들은 신의 그림자일뿐이다.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는 건 가없는 일이다”고 꼬집는다. 이어 “책을 읽은 뒤엔 나를 고무하는 저자를 닮은 사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빼다박은 생각을 세상 밖에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8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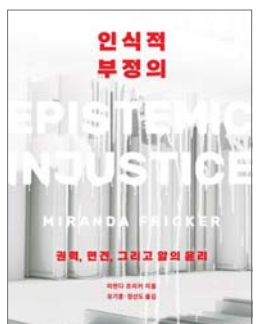
인식적 부정의

미란다 프리커 지음/유기훈, 정선도 옮김/오월의봄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 헤매는 성소수자’, ‘불신에 둘러싸여 증언을 묵살당하는 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부당한 피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언어를 오랫동안 갖추지 못해왔다. ‘편견’, ‘고정관념’, ‘차별’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들은 이들이 겪는 인식적 층위에서의 부정의(injustice)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어의 부재로 피해자들은 부당한 경험을 선명하게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한 채 침묵 속에 갇혀야 했다. 책은 인식적 부정의라는 개념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정치와 윤리가 깃들었는지, 부정의에 저항하는 인식적 실천이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368쪽.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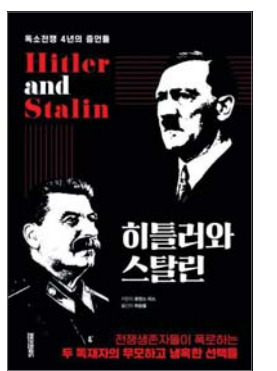
히틀러와 스탈린

로렌스 리스 지음/허승철 옮김/페이퍼로드

강대국들의 현실 정치는 인류를 끝없는 타락으로 이끌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됐다.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던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겐 ‘전쟁 범죄자’, ‘죄악의 공조자’, ‘민족의 배신자’, ‘반동분자’, ‘무고한 희생자’, ‘강제수용소의 수감자’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시대의 비극을 눈에 담은 생존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스탈린의 죄악을 낱말이 까발렸다. 그들이 증

언한 전쟁의 본질은 간결하게 사악했다. 이웃을 배신하고, 약자를 유린하며, 소수자를 짓밟는 죄악의 시기였다. 30년간 세계대전을 연구한 저자는 1248개의 증언을 책에 담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전쟁이었다”고. 그 어떤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전쟁은 결코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책은 강조한다.

888쪽. 3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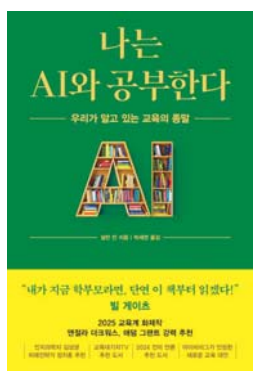


나는 AI와 공부한다

살만 칸 지음/박세연 옮김/알에이치코리아(AHK)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지나친 디지털 의존, 문해력 저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교육의 동반자로 삼을지, 두려운 적대자로 남겨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책은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AI 융합형 교육 플랫폼 ‘칸

미고(Khanmigo)’를 개발한 살만 칸. 그는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인공지능은 교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놓을 것”이라며 “AI는 인간의 지능과 잠재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학습 도구”라고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 학습 참여를 독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I는 교육의 종말이 아닌 새 시작이 될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336쪽. 2만5000원



▲“지옥될것” 트럼프 강력경고에 가자 휴전... 우크라이나 /사진 뉴시스
▲미국, 중국 AI 업체 등 무더기 제재... 첨단 반도체 추가 규제

▲美재무 후보자 “트럼프 ‘경제적 황금기’ 기회... 달러 지위 유지 중요”
▲美싱크탱크 “尹세포 이후 韓 미지의 영역... 안정화에 집중을”

▲바이든 백악관서 고별 연설... 트럼프 겨냥 “권력 가두제 민주주의 위협”
▲美국무 후보 “독재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보람”... 韓핵무장 반대 시사